

KIA 외국인 투수 파노니 영입...로니와 결별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부진을 이어가던 로니 윌리엄스(26)를 퇴출하고 새 외국인 투수 토마스 파노니(28)를 영입했다.

KIA는 28일 좌완 투수 파노니와 연봉 30만달러(이적료 별도)에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보스턴 레드삭스 산하 마이너리그 트리플A 로체스터 레드삭스는 이날 파노니를 방출했다.

파노니는 이날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로체스터에서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했다. 모든 것이 감사하다"고 작별 인사를 한 후 "한국의 KIA 타이거즈에서 이번 시즌을 마무리한다고 밝힐 수 있게 돼 행운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KIA 구단의 공식 계정을 태그한 뒤 "곧 만나자"고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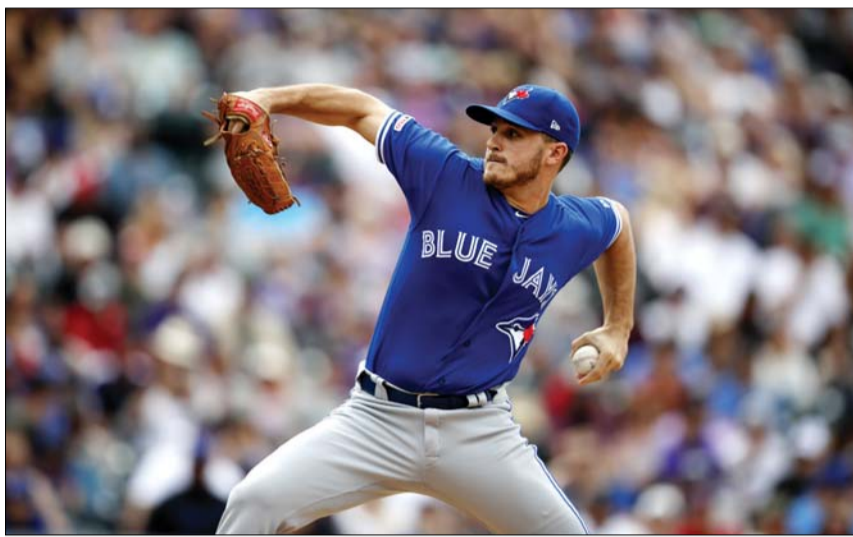
몇 시간 뒤 KIA는 파노니 영입을 공식 발표했다.

KIA는 외국인 투수 때문에 골치를 앓았다.

올 시즌 8경기에서 2승 5패 평균자책점 3.53을 기록한 선 놀린은 지난 달 말 종아리 부상을 당해 전력에서 이탈했다. 로니 윌리엄스는 10경기

파노니, SNS 통해 KIA행 밝혀

올해 트리플A서 5승 3패 ERA 4.57



2019년 메이저리그(MLB) 토론토 블루제이스에서 뛰던 당시 토마스 파노니.

에서 3승 3패 평균자책점 5.89로 부진했다.

새 외국인 투수를 모색해 온 KIA는 파노니와 계약했다. 파노니를 영

입하면서 부상을 당한 놀린 대신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인 로니를 방출했다.

2013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9라운

드, 전체 261순위로 클리블랜드 인디언스(현 클리블랜드 가디언스) 지명을 받은 파노니는 2018년 토론토 블루제이스에서 빅리그에 데뷔했다.

파노니는 2018-2019년 빅리그에서 뛰었다. 빅리그에서 선발과 중간을 오간 파노니는 두 시즌 통산 7승 7패 1홀드 평균자책점 5.43의 성적을 거뒀다.

마이너리그 통산 성적은 157경기, 43승 33패 2홀드 평균자책점 4.09다. 올해 트리플A에서 뛴 파노니는 14경기(선발 12경기)에 등판해 5승 3패 평균자책점 4.57의 성적을 냈다.

KIA는 "파노니는 선수 경력의 대부분을 선발 투수로 등판할 정도로 이닝 소화력이 뛰어나고, 제구력이 안정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상대 타자와의 승부에서 타이밍을 뺀 투구와 경기 운영 능력 역시 수준급"이라고 설명했다.

파노니는 오는 30일 입국해 메디컬체크 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파노니는 2018년 3월 금지약물 복용이 적발돼 80경기 출전정지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뉴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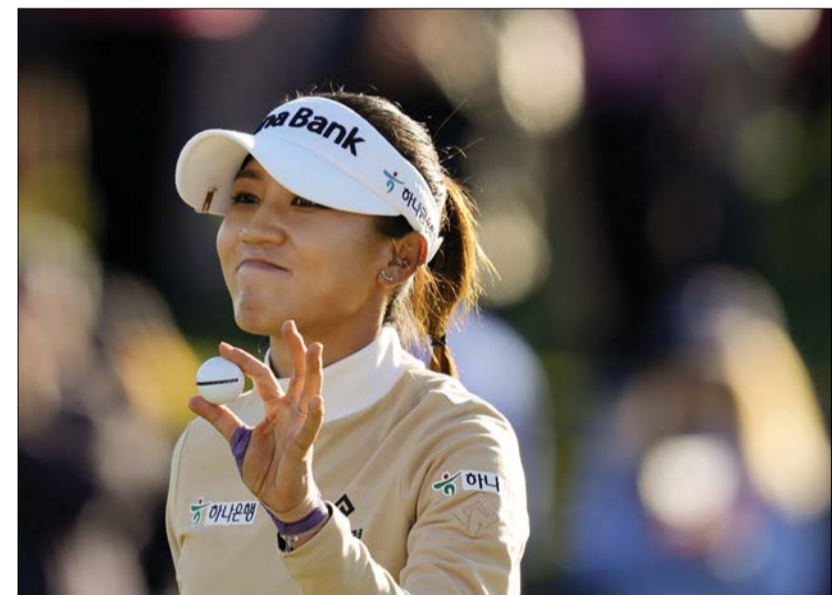


조재호, PBA 진출 11개 대회만에 첫 우승 조재호(NH농협카드) 당구선수가 27일 경

주시 블루원 리조트에서 '블루원 리조트 PBA-LPGA 챔피언십 개막전' 우승 트로피를 들고 환호하고 있다. 2020-21시즌 NH농협카드 PBA 챔피언십(3차전)을 통해 프로당구 무대에 진출한 조재호는 세 차례 결승 무대만에 첫 우승을 거머쥐었다. 프로전향 후 약 1년 6개월만이자, 11번째 투어 만에 감격적인 첫 우승을 달성했다. /PBA 투어 제공

리디아 고, 현대카드 부회장 아들과 결혼

오는 12월 '웨딩 홀인원'...2년 교제·양가 인사도 마쳐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활약 중인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25·한국명 고보경)가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아들 정준과 결혼한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들은 오는 12월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린다. 세계적인 골프 선수와 재벌가 아들의 결혼식으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들의 열애설은 지난해 알려졌다. 이들은 2년간 교제했으며, 양가 부모님들의 인사도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리디아 고는 17세에 세계랭킹 1

위에 오르는 등 '천재소녀' 명성을 떨쳤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17승을 올렸으며, 현재 세계랭킹 5위를 달리고 있다.

2016 리우올림픽에서도 은메달, 2020 도쿄올림픽에서는 동메달을 획득했다.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은 고(故) 정경진 종로학원 설립자의 장남이자,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명예회장의 둘째 사위다.

현대카드와 현대캐피탈, 현대카드머신 등 현대차그룹 금융 계열사 3곳의 대표이사를 맡았고, 2015년부터 부회장직을 맡고 있다.

순천시 8월 13일부터 '도드람컵 프로배구대회' 개최

코로나19로 3년 만에 다시 열려...김연경 복귀전 예상



순천시는 오는 8월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버릴 남녀 프로배구대회를 순천팔마체육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한국배구연맹(KOVO)이 주관하는 공식 프로배구대회인 '2022 순천·도드람컵 프로배구대회'는 2019년 순천개최 이후 2020년 제천,

2021년 의정부를 거쳐 3년 만에 다시 순천에서 열린다.

지역 배구 팬들이 더욱 설레는 이유는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닫혀있었던 관중석이 활짝 열리기 때문이다. 2019년도 순천에서 개최된 '순천·MG새마을금고 프로배구대회'는 역대 최고 수준인 관중 4만 명을

둘과해 32억여 원의 지역경제 유발효과를 거둔 바 있지만, 2020년·2021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해 무관중 대회를 개최해왔다.

또한 이번 대회는 '배구여제' 김연경의 한국 무대 공식 복귀전이 예상된다. 지난 21일 흥국생명으로 복귀한 김연경은 7월 초 팀 훈련에 합류한다.

김연경을 포함한 다수의 배구스타들의 경기를 직접 볼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벌써부터 순천이 들쭉거리고 있다.

순천시와 (사)한국배구연맹은 그동안 V리그를 볼 기회가 적었던 지역 팬들에게 멋진 경기를 보여주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

'2022 순천·도드람컵 프로배구대회'는 8월 13일부터 8월 20일까지는 여자부 경기가, 8월 21일부터 8월 28일까지는 남자부 경기가 순천팔마체육관에서 펼쳐지며, 초청 2팀을 포함해 총 16팀이 출전한다.

/순천=조순의 기자

팔꿈치 수술 류현진 15일~60일 부상자 명단에

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을 받은 류현진(35·토론토 블루제이스)이 60일짜리 부상자 명단(IL)에 등재됐다.

토론토 블루제이스는 28일(한국시간) "지난 3일 15일짜리 IL에 올랐던 류현진이 오늘 60일짜리 IL로 이동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팔꿈치 수술을 받은 류현진은 부상 회복과 재활기간을 포함하면 내년 시즌 상반기 등판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류현진은 지난 2일 시카고 화이트삭스와 경기에서 조기 강판됐다. 통증을 안고 던지던 류현진은 결국 3일자로 부상자 명단에 올랐다.

류현진은 40인 로스터에서 제외됐으며, 오른손 볼펜 투수 손 앤더슨이 메이저리그로 승격했다. 올해 6경기에 등판한 류현진은 2승 평균자책점 5.67로 부진한 성적을 남긴 후 시즌을 마감했다. 메이저리그 통산 175경기(1003⅓이닝)에 등판해 75승 45패 평균자책점 3.27을 기록했다.

2022 행복해남!

해남형 ESG로 살기 좋은 해남을 만들어가요!

탄소 중립도시 완성
청정해남

환경 Environment

기후변화 대응 | 친환경 | 탄소저감

안전망 구축
함께해남

사회 Social

안전망 구축 | 경제활력 제고 | 교육·공동체 육성

공정한 윤리경영
청렴해남

지배구조 Governance

청렴한 공직문화 | 혁신과 참여행정 | 건전재정